

JANUARY 2022 VOL. 639

hyangjang



AMOREPACIFIC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새해를 맞이하는 필수템

SPECIAL 탄력을 높이는 10가지 방법

MAKEUP PLAY 행운을 부르는 메이크업

- 02 NEWS
1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아치 & 블드아이 브로우
- 08 MAKEUP
컬러별 블러셔 활용팁
- 14 SPECIAL
탄력을 높이는 방법
- 22 PRODUCT
새해를 맞이하는 필수템
- 28 MAKEUP PLAY
행운을 부르는 메이크업
- 32 PRODUCT
선풍수
- 34 PRODUCT
아이오페
- 36 PRODUCT
바이탈뷰티
- 38 PRODUCT
구말 파리
- 42 MEN
남자 피부 고민별 솔루션
- 44 ICON
1월의 인테리어
- 48 INTERVIEW
아름다움을 나누는 엄마와 딸
- 50 REVIEW
간간한 품평단의 품평 리뷰
- 52 PLACE
주인보고 가는 숙소
- 54 ITEM
설을 위한 특별한 선물
- 56 EDITOR'S PICK
1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2년 1월 1일
 발행 등록 639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컨텐츠&서비스팀
 인쇄 (주)태신인팩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5년간 639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HYANGJANG JOURNAL


All Red : 스타일을 환기하는 최고의 요소는 컬러. 코로나 블루를 날려버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맑고 활기찬 레드가 온다.

editor LEE MI KYUNG

올해 주목해야 할 트렌드 컬러는 단연 레드. 코로나 19로 꽤 오랫동안 일상이 정지되는 상황을 겪은 디자이너들은 이번 시즌 정열적이고 화려하며 활기 넘치는 레드 컬러를 활용한 룩을 대거 출시했다. 채도 높은 강렬한 레드부터 전통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클래식 레드는 물론 차분한 느낌으로 가을과 겨울에 잘 어울리는 톤 다운된 레드우드 등 폭넓은 스펙트럼도 눈에 띈다.

빈티지한 플라워 패턴이 매력적인 레드 드레스와 벨벳 수트를 선보인 구찌를 비롯해 시스루 드레스로 강렬한 느낌을 극대화한 스포트맥스, 그 밖에 디올, 이자벨 마랑, 버버리, 질 샌더까지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레드를 각자의 방식으로 세련되고 클래식한 무드로 표현했다. 크롭드 수트를 선보인 샤넬과 패널을 더한 트렌치코트를 제안한 에르메스 등은 자칫 과하게 선명하거나 강렬할 수 있는 레드의 분위기를 소재나 디테일로 중화해 세련된 무드를 잘 살렸다.

레드는 강렬한 만큼 아이템 한 가지나 액세서리에 포인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과감하게 전체를 레드로 맞춰 입은 올 레드 룩도 많아졌다. 강렬한 올 레드 룩을 완성한 사카이, 마이클 코어스, 발렌시아가 등이 그 예다. 셋업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실루엣이 간결해지고 디테일이 절제되는 대신, 색감이 강해지는 추세. 레드가 워낙 강렬한 컬러인 만큼 아무리 트렌드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소화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지나치게 강렬한 레드 컬러나 올 레드 룩이 부담스럽다면 가방이나 신발 등을 레드로 선택해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경구용 치료제의 등장과 함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런웨이 위 모델들의 입술도 탐스럽고 강렬한 레드가 점령했다. F/W 시즌이 시작되자 많은 뷰티 브랜드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컬러는 레드, 텍스처는 보송한 립스틱을 앞다퉈 선보이는 중이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입술에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게 건조해 촉촉한 제형의 립스틱을 포기할 수 없다면 레드 컬러를 바른 뒤 같은 색 아이섀도나 블러셔를 덧발라 볼 것 깨끗한 브러쉬로 톡톡 누르듯 바르고 파우더로 코팅하면 보송한 질감을 살리는 것은 물론 컬러의 지속력도 높일 수 있다. 





스트리트 웨어의 우아한 변신

스포티하면서도 모던한 감성이 돋보이는 동시에 헤리티지가 느껴지는 우아한 스트리트 웨어가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푸마와 메종키츠네가 협업해 선보이는 두번째 컬렉션이다. 푸마의 클래식한 디자인과 스포츠 헤리티지에 메종키츠네의 미감이 더해져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푸마와 메종키츠네의 로고를 담은 자수 디테일과 밝은 톤의 컬러 팔레트도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 아시아의 스트리트 웨어에 프렌치 스타일의 우아함을 가미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담아냈으며 스니커즈,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출시되어 스타일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문의 푸마(080-082-0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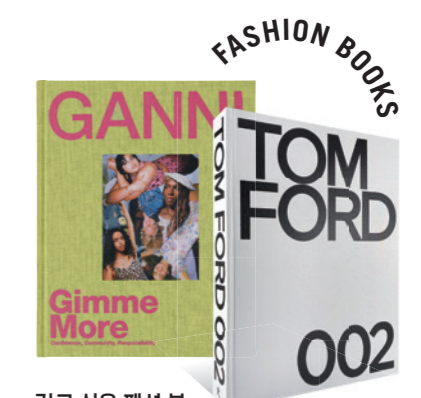
겨울 스타일링의 완성

롱 코트, 니트 원피스, 스커트 등 심플한 옷차림에 매치할 멋스럽고 세련된 슈즈를 찾고 있다면 세르지오 로시의 트렌디하면서도 시크한 롱부츠를 눈여겨보길. 발목에 버클 장식으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뽀족한 앞코가 멋스러울 뿐 아니라 신으면 다리가 늘씬하고 길어 보인다. 지퍼가 있어 신고 벗기 편하며 부드러운 나파 양가죽을 사용해 부드럽고 시크한 파리지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문의 세르지오 로시(02-3277-0259)



역대급 협업 컬렉션

10 꼬르소 꼬모의 그래픽을 프린트한 MM6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토트백, 붉은 여우가 그려진 메종키츠네의 에코백과 반소매 티셔츠, 데님 소재의 아페쎬 솔더백, 사카이의 티셔츠와 토트백까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10 꼬르소 꼬모 밀라노가 특별한 협업 컬렉션을 준비했다. 밀라노에 이어 10 꼬르소 꼬모 서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생산자와 협업해 아이코닉한 그래픽과 심벌이 돋보이는 쿠션, 화병, 키친 액세서리, 블랭킷 등 홈 컬렉션을 론칭해 공간에 활기와 세련미를 더할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10 꼬르소 꼬모 서울(02-3018-1010)



갖고 싶은 패션 북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북 두 권이 발간된다. 이 중 덴마크 패션 브랜드 가니의 브랜드 정체성과 창의적 여정을 담은 첫 브랜드 북 <Gimme More>는 하드 커버에 친환경 인증 종이를 사용했으며, 2백40쪽에 달하는 분량에 브랜드를 둘러싼 세계적인 포토그래퍼와 스타 일리스트,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포착한 2백여 장의 사진이 가득하다. 한편, <TOM FORD 001> 이후 17년 만에 발간하는 <TOM FORD 002>는 2005년 설립한 브랜드 톰포드의 시작을 비롯한 역사적 순간 등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총 444페이지에 걸쳐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담았다.

문의 가니(02-6911-0734), 톰포드(02-6205-2328)



체커보드를 입은 라이카

라이카 카메라가 스케이티어자 뮤지션, 포토그래퍼 등으로 활동하는 바비 레이와 협업해 개성 넘치는 리미티드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자유로운 스케이티어의 분위기와 정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이번 캡슐 컬렉션은 반스의 아이코닉한 체커보드 패턴으로 카메라를 감싼 것이 가장 큰 특징. 카메라 사양은 기존 D-Lux 7과 동일하며, 개성 넘치는 카메라 디자인과 더불어 더스트백 한 면에 바비 레이의 모토인 '여행은 기록하는 즐거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희소가치도 높다.

문의 라이카 카메라(1661-0405)

은하수가 쏟아지는 스파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온천수로 피로를 풀고, 물 위에 펼쳐지는 은하수를 감상하는 기분, 굳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다. 40주년을 맞아 야외 온천 시메르를 카멜리아 & 갤러시 스파로 새롭게 단장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그 주인공이다. 스파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며 낮에는 동백꽃이 가득 수놓인 정원에서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출하고, 밤에는 물 위에 화려한 밤하늘의 은하수를 영상으로 표현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문의 파라다이스호텔 부산(051-742-2121)



아치 형태의 굵은 눈썹을 위한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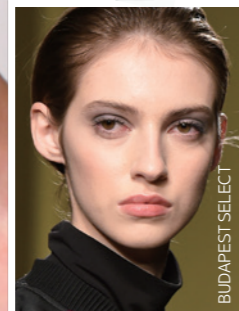
얼굴에서 첫인상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눈썹이다.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슬. #77 그레이, 0.3g, 1만8천원.

몇 시즌 전부터 결을 잘 살린 아이브로우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완벽한 눈썹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슈퍼모델 린다 에 반젤리스타의 말은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아이브로우 트렌드의 핵심은 부드러운 질감의 눈썹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 특히 이번 시즌에는 자연스럽게 정돈된 느낌으로 결을 살리는 기존 스타일에서 좀 더 강한 느낌을 살려 결의 존재감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생기 넘친다. 에르메스, 제이슨 우, 막스마라 런웨이에 선 모델들의 정갈하면서도 인상적인 눈썹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눈썹 결을 살리며 깔끔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눈매가 시원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 눈썹 결을 살릴 때 아이브로우 젤을 이용해 결을 살린 후 달군 막대로 한 번 더 고정하면 확실한 결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기억해두자.

자연스럽게 정돈한 결과 함께 짙고 굵으며 선명하게 아치를 그리는 형태도 눈에 띈다. 1990년대를 풍미한 슈퍼모델 신디 크로퍼드의 눈썹이 지금도 여전히 세련되게 느껴지며, 지금 당장 런웨이에 올라도 눈썹만큼은 전혀 어색하지 않



BUDAPEST SELECT



LOUIS VUITTON



VAISHALI



DIOR



OFF-WHITE™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MI KYUNG



DIOR



MAXMARA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79 무디, 3.5g 3만5천원.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15g x 2, 7만5천원.



HERMES



JASON WU

을 정도. 에트로, 코세, 루이비통과 디올 런웨이에 선 모델들의 눈썹과도 흡사하다. 펜디 오프 화이트의 쇼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피터 필립스는 길고 진하며 각지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비토리아 세레티의 눈썹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포츠1961의 런웨이를 맡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이앤 캔달 역시 모델 본래의 눈썹을 더욱 진하게 강조했다. 짙고 굵은 눈썹을 어색하지 않게 연출하려면 눈썹과 똑같은 색 아이브로우 펜슬로 빈 곳을 메우면 된다. 만약 눈썹 산과 각이 뚜렷하지 않다면 위아 메이드인 이탈리아 런웨이 위 모델들의 메이크업을 참고해도 좋다. 술을 다들지 않아 다소 거친 듯한 눈썹 결을 그대로 빚어 올리고 고정하면 되기 때문에 눈썹을 칠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눈썹 앞머리의 힘을 빼면 보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극적인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

눈썹이 도드라지는 만큼 피부와 입술은 청순한 내추럴 룩을 연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부는 헤라의 블랙 쿠션이나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설화수의 에센셜 세럼 스틱이나 헤라의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등 색감이 약간 있는 립밤을 발라 입술에 생기와 윤기를 더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10**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꽃처럼 물들일 때

블러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네 가지 컬러로 연출한 각기 다른 분위기의 *치크 메이크업*.

photographer PARK HYUN GOO

editor CHOI HYANG JIN

BRONZE CHEEKS

브론저를 여름에만 사용한다는 편견을 버릴 것. 페이스 라인을 따라 터치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자놀이부터 광대뼈를 따라 사선으로 바르면 도회적인 느낌의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골드 펄이 든 제품도 좋고, 펄감 없이 매트한 제품도 좋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거나 혼합해 사용해볼 것.



PINK 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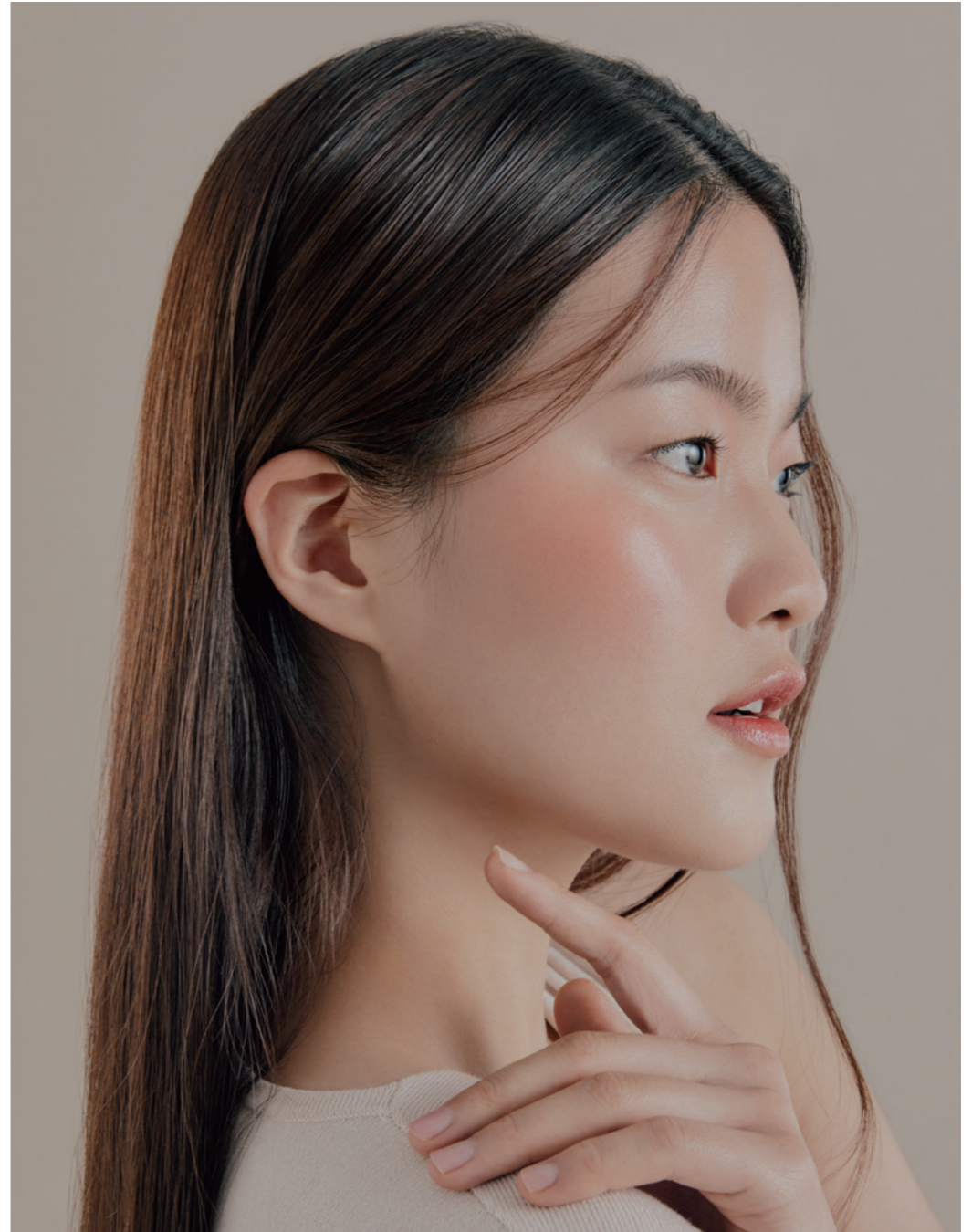
코스모스처럼 여릿여릿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핑크 블러셔는 치크 메이크업의 정석. 뺨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물감이 번진 듯 수채화처럼 물들이면 소녀같이 사랑스러운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블러셔 위치가 아래보다는 눈에 가까울수록 페이스 라인이 올라붙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PEACH ORANGE

피부가 워밍 톤이거나 따스한 이미지를 좋아한다면 붉은 기가 도는 오렌지나 피치 컬러 블러셔가 잘 어울린다. 눈두덩이부터 광대뼈 위까지 하나의 컬러로 연결되는 원톤 메이크업은 트렌디할 뿐 아니라 메이크업 시간도 단축해주므로 이번 기회에 꼭 습득해보자.



PURE RED

레드 역시 몇 시즌째 블러셔로 인기를 얻고 있는 컬러. 선명한 발색으로 사용하기 부담스럽다면 레드 립글로스를 손가락에 살짝 문힌 후 뺨에 톡톡 두드려 물들이듯 연출해볼 것. 촉촉하고 투명한 텍스처로 레드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MODEL: SEO YU JIN,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새해 탄력 많이 받으세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피부 탄력에 따라 결정된다. 작년보다 더 탄력 있는 피부로 한 해를
이름답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을 모았다.

photographer PARK HYUN GU(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

탄력이 부족 떨어져 고민이라면
좋은 성분의 힘을 믿어보자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늘어난 피부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스킨케어 전 라인을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교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주름 개선이나 유·수분 충전 등 단편적인 효능을 약속하는 것보다는 인삼 뷰티활성사포닌을 믿음직한 성분으로 속부터 겉까지 고르게 탄력을 더해줄 제품을 골라야 한다. 인삼에너지를 6천 배 농축해 만든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피부 재생력을 높여 탄력과 관련한 문제를 고루 해결해줄 설화수의 자음생 라인을 꾸준히 쓰길 권한다.

1.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탄력이 떨어진 곳에 정확히 도달해 피부 바탕을 탄탄히 다지고 탄력의 힘을 세우며 주름을 당겨주는 3중 탄력 에센스. 누적 판매 1백만 병을 돌파한 스테디셀러다. 50ml, 20만원.
2.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진세노믹스™에 활기 추출물을 더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표정 때문에 주름지기 쉬운 이마, 미간, 눈가, 팔자주름, 입꼬리를 잇는 이미지 존의 탄력을 강화해 젊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꿔준다. 60ml, 25만원.



탄력 셀프 체크리스트

3개 이상 해당하면 탄력 관리가 시급하다.

- 거울을 정면으로 봐도 이중 턱이 보인다.
- 베개 자국이 오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 잔주름이 늘어난다.
- 모공이 늘어진 게 눈에 보인다.
- 얼굴선이 울퉁불퉁하다.
-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
- 뺨 한가운데를 꼬집었을 때 살이 잘 꼬집힌다.

#2

효과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고르자

탄력을 즉시 높여준다는 시술이 많고 많지만, 자못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들인 비용에 비해 효과의 지속 시간이 짧거나 자극이 강해 피부가 예민해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 꾸준히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전문가의 손길을 옮겨온 헤라의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라인을 추천한다.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능을 가진 BX 펩타이드와 인체 유사 리얼 콜라겐 그리고 재생을 돕는 쌀 EGF를 함유해 주름을 당기고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1.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피부 깊숙이 침투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리포솜 솔루션을 83% 적용해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고기능성 에스테틱 세럼, 40ml, 12만원.

2.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크림
인체 유사율 99.9%의 리얼 콜라겐과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함께 넣어 마지막까지 탄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고 오랜 시간 윤기를 더해주는 탄력 고정 크림, 50ml, 12만원.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능은 강력한 마사지

셀프 마사지는 왠지 복잡하고 효과도 미미할 거라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 마사지는 림프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혈류량을 늘려 영양분을 신속하게 전달해 탄력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방법이 어렵지 않다. 관자놀이, 눈머리와 눈꼬리, 콧방울 양옆, 인중과 턱의 중심을 지그시 누르면 끝. 목은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된다. 마사지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오히려 주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회당 3~5분만 해도 충분하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손끝에 살짝 힘을 쓰는 정도가 적당하다.

#3

이미 진행된 노화를 되돌리고 싶다면 시계 유전자에 주목하자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시계 유전자 두 가지가 있다. 진피 주름에 관여하는 탄성 유전자와 표피의 보습과 연관이 있는 보습 유전자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도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진행된 노화의 흔적을 없애고, 매일 흐트러지는 피부의 생체리듬을 회복시켜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노화의 유발 인자까지도 억제해 보다 지속적인 안티에이징이 가능하다. 노화와 탄력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17년 동안 연구를 거듭했고, 독점 개발한 신물질 차에서 희귀 항산화 성분을 고농축해 얻은 앰솔루티™를 발견해냈다. 이를 담은 타임 레스폰스 라인은 두 가지 시계 유전자를 컨트롤해 보다 믿음직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인다. 팔자주름, 이마 등의 깊은 주름을 확실하게 완화하고 싶다면 가장 믿음직한 주름 개선 성분인 레티놀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보다 안정화된 레티놀을 최적의 함량으로 담은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가 도움이 될 것이다.



1.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독자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인 앰솔루티™가 3가지 핵심 노화 요소인 탄력, 주름, 보습을 개선해주어, 흔들림 없이 탄탄하고 초밀도 피부를 완성해준다. 50ml, 50만원.

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생명력의 정수 앰솔루티™가 피부 속부터 깨어해 피부 본연의 빛을 깨우고, 비타민C의 20배 항산화 효과를 가진 EGCG리뉴얼 파우더가 입체적 탄력을 선사해 다음 날, 피부로 느끼는 압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7ml+0.6g×4ea, 62만원.

3.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어드밴스드 타임 레스폰스 콤플렉스™가 피부에 젊음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부드럽고 탄탄한 피부 탄력을 선사하고, 녹차 세포수™와 첫물 녹차가 정제수 대신 함유 되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수분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은은한 안개 분사력으로, 메이크업 위에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200ml, 12만원.

4.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효능이 보장된 성분인 레티놀을 최적의 함량으로 넣어 2주 만에 굵은 주름까지 완화해주는 안티에이징 세럼. 풍부한 영양감과 보습 효과로 피부에 윤기를 더한다. 20ml, 13만원.

#4

속부터 탄력으로 든든히 채우자

몸 전체를 기분 좋은 탄력으로 가득 채우려면 이너 뷰티에 주목하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부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을 섭취한 결과 피부 탄력 뿐 아니라, 보습, 거칠기 등이 개선되는 것이 밝혀졌다.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처럼 기능성 원료인 콜라겐 외에도 비오틴, 셀렌까지 함유되어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 자기 전 꾸준한 콜라겐 섭취를 통해 피부 속 콜라겐을 빈틈없이 꽉 채워 달라지는 탄력을 느껴보자.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 수분량, 거칠기, 주름 깊이, 총체적 피부 탄력 등 총 7가지 피부 지표 개선이 확인된 프리미엄 콜라겐 앰플이다. 25ml×30앰플, 11만원.



탄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세포 재생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숙면을 취하면 피부 세포가 재생되고 활성산소가 줄어들어 피부가 탄력을 되찾을 수 있다. 수분 보충도 중요하다. 얼굴이 멍기는 느낌이 들 때마다 미스트를 뿌리거나, 평소 건조한 편이라면 밤이나 오일 등으로 수분이 날라가지 않게 코팅을 해주자. 화장품을 바를 때에는 가볍게 두드려 발라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게 하고, 모공이 열리기 쉬운 사우나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를 늘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옷을 때보다 찡그릴 때 얼굴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찡그릴 때 생긴 주름은 보다 깊은 흔적을 남기므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5

탄력을 떨어뜨리는 자극에서 벗어나자

장시간 마스크를 쓰는 환경은 탄력의 적이다. 마스크 착용과 피부 건조나 민감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져 있고, 자극과 건조는 곧 탄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부터 탄력 케어를 시작해야 한다. 복잡한 기능이 담긴 스킨케어 제품보다는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워터와 에멀전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가꿀 것. 건조한 겨울바람을 오래 쐬었거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지친 기분이 든다면 프리메라 씨드 앤 스프라우트 에너지 마스크 로터스로 활력을 더하는 것도 좋다.

1.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맑고 촉촉하게 가꾸고, 연약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며,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건강하게 되돌려준다. 180ml, 3만원.
2. 프리메라 씨드 앤 스프라우트 에너지 마스크 로터스
피부를 진정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수분 막을 씌운 듯 촉촉함을 더해주는 순면 시트 마스크. 5매, 1만원.



MODEL: LEE HYE SEUNG,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한 살 더 어려워지는 신년 뷰티

밝아온 2022년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는 물론

이너뷰티까지 챙기는 신년 뷰티 아이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150ml, 6만8천원.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7만2천원.

#영양보습케어
#영양훈증수
#자음보습단™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사계절 내내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하고 풍부한 영양과 보습감을 선사하고 싶다면 설화수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이 제격.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탁월한 다섯 가지 원료를 황금 비율로 처방한 자음보습단™에 당귀와 천궁을 18시간 동안 훈증해 모은 영양훈증수를 담아 수분과 영양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도록 도와준다. 젤 타입 스킨인 자음수 퍼펙팅은 부드럽고 영양감이 느껴지는 질감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피땀결을 촘촘하게 다져주며, 크림이한 로션인 자음유액 퍼펙팅은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부드럽게 개선해준다.



설화수 자음생수EX & 자음생유액EX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를 바란다면 피부를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탄력 효과를 발휘하는 탁월한 안티에이징 제제인 자음생 라인 2종을 눈여겨보자. 진귀한 인삼 사포닌을 6천 배 이상 농축한 고농축 진세노믹스™와 인삼 속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응축한 증삼수™를 함유해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로 가꿔준다. 매끄러운 질감의 자음생수EX는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밀기한 텍스처의 자음생유액EX는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을 부여한다.

설화수 자음생수EX. 150ml, 10만원.
설화수 자음생유액EX. 125ml, 10만5천원.

#탄력안티에이징
#활성뷰티사포닌진세노믹스™
#피부자생력강화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200ml, 9만원.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160ml, 8만원.

#럭셔리스킨케어의시작
#이슬같은피부
#스킨컴포팅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가장 이상적인 스킨케어의 시작이란 뭘까?
세안 후 피부 진정과 동시에 수분이 빠르게 충전되어 고기능성 성분들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부를 침해하지 않고 핵심 유효성분을 전달하게끔 하는 피부 바탕일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보태니컬 수딩 토너와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는 왕대나무 수액이 탁월한 수분 진정 효과를 발휘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주어 꿈에 그리던 스킨케어의 시작을 돕는다. 인체를 구성하는 수분과 흡사해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피부 컨디션을 건강하게 개선해준다. 우아하게 얼굴 위로 퍼지는 럭셔리 무드의 향도 매력적이다.

헤라 시그니아 세럼. 50ml, 22만원.
헤라 시그니아 크림. 60ml, 28만원.

#토탈안티에이징
#나르시스줄기세포3백만개
#탄탄하고매끄러운피부



헤라 시그니아 세럼 & 크림

생기 넘치고 윤기 있게 빛나는 피부로 바꾸고 싶다면 50년에 걸친 피부와 식물세포 연구 노하우로 탄생한 헤라의 시그니아 세럼과 크림을 주목할 것. 나르시스 식물세포 3백만 개와 수선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 마치 타고난 듯 탄탄하고 매끄러우며 윤기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고농축 질감의 시그니아 세럼은 6주 만에 윤기와 탄력 균일도를 개선하며, 고농축 질감의 녹아드는 텍스처가 돋보이는 시그니아 크림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촉촉하고 탄탄하게 가꿔준다.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380ml, 3만7천원.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150ml, 3만원.

#탈모완화
 #두피안티에이징
 #모발강화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모발의 강도와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빠진다면 프리메라의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와 헤어 모이스처라이저의 도움을 받아보자. 두피와 모발에 산뜻한 청량감을 선사하며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는 풍성하고 쫄득한 거품이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하고 부드럽게 스के일링해준다. 두피와 모발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매끄러운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헤어 모이스처라이저는 실리콘을 배제하고 탈모 기능 성분을 함유한 수분 로션으로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500mg×90정, 5만5천원.

#프리미엄카테킨
 #새해다이어트
 #식습관관리
 #체지방케어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수많은 여성의 새해 목표 중 하나인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한국인의 식생활을 연구해 설계한 녹차건강기능식품을 만나보자. 아모레퍼시픽에서 개발한 녹차카테킨 조성물이 잦은 외식과 고열량, 고지방 식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한국인의 문제적인 식생활로부터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원활한 대사 리듬을 찾아준다. 녹차잎의 1%에 해당하는 귀한 성분인 녹차 플라보놀과 녹차다당체와 녹차꽃, 녹차씨가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는 프리미엄 녹차건강기능식품이다. 또한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 D가 함유되어 뼈 건강과 항산화 리듬까지 관리해준다. **10**



행운을 부르는 메이크업

이왕 하는 메이크업, 복을 부르는 인상을 만들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좋은 관상을 만드는 메이크업.

LOOK 1. 건강운이 좋아지는 메이크업

건강한 사람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혈색이 좋은 법. 바꿔 말하면 피부의 윤기와 빛을 살리면 밝은 기운이 따라온다. 다크서클을 가리고 입술은 붉게 물들여 생기를 불어넣자.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25/PA++ 35ml, 6만5천원.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233 퓨어 타투, 7ml, 3만7천원.

FACE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발라 환하고 윤기 있게 연출한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중 밝은 컬러를 눈두덩이에 언더 래쉬 라인에 발라 눈가에 밝은 기운을 더하고,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표현한다.

LIPS 입술에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233 퓨어 타투를 발라 생기를 불어넣는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관운을 높이는 메이크업

밝게 빛나고 깨끗한 이마는 명예운을 높이고, 길고 반듯한 눈썹은 관운과 재복을 부른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붉은 입술은 관운이 좋은 인상이라고 하니, 중요한 일에 대비해 레드 립스틱은 반드시 구비하는 것이 좋겠다.



헤라 페이스 디자인 하이라이터 10g, 4만5천원.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슬 #77 그레이, 0.3g, 1만8천원.
헤라 루즈 홀릭 #300 서울 레드, 3g, 4만원.

FACE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헤라 페이스 디자인 하이라이터를 T존과 C존에 가볍게 바른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을 눈두덩이에 가볍게 바르고, #09 플로렌스의 밝은색을 눈머리에 발라 포인트를 준다.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슬 #77 그레이로 눈썹을 선명하게 그린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300 서울 레드를 입술 선을 살려 선명하게 바른다.



LOOK 3. 재운을 가져오는 메이크업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는 귀티나는 인상의 기본. 또 반듯하고 오뎅하게 솟은 코는 부귀를 상징한다. 아이섀도도 금빛이 도는 오렌지색이나 핑크색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다.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 10g, 4만5천원.
헤라 섀도 듀오 #06 라이커블,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252 누드 크림, 3.5g, 3만5천원.

FACE 얼굴에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잘 펴 바른 뒤,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로 코털 옆과 페이스 라인을 살짝 쓸어 윤곽을 또렷이 살려준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06 라이커블로 음영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헤라 리치 컬링 마스크라 #79 래쉬 블랙을 등쪽 발라 선명한 눈매를 연출한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252 누드 크림을 입술에 꼭 채워 바른다.



LOOK 4. 애정운을 부르는 메이크업

얼굴에서 애정운과 관련이 깊은 부분은 눈! 눈 밑이 도통해 애꿎살이 살아 있으면 자식운이 좋고, 눈꼬리가 탄력이 있어 풍요롭게 보이고, 입술 역시 도통하고 끝이 살짝 올라가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상이라고 한다.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01 이터널 핑크, 10g, 4만8천원.
헤라 립 디자인어오토 펜슬, #1 더 인비저블, 0.2g, 2만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란제리, 5g, 3만5천원.

FACE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 #01 이터널 핑크를 뺨에 가볍게 발라 사랑스러운 홍조를 연출한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01 보니로 가벼운 음영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한 뒤,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눈꼬리를 살짝 올린 캐츠 아이 라인을 그린다.
LIPS 입술 라인 밖을 따라 헤라 립 디자인어오토 펜슬 #1 더 인비저블을 발라 입매를 깨끗이 정돈한 뒤,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란제리를 바른다.

MODEL: PEI CHEN, MAKEUP: LEE YOUN SUN, PARK JANE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기초부터 360도 전방위로 탄탄하게!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 중에서도 진설수는 진귀한 원료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하이엔드 라인이다.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관리해 근본부터 귀한 피부로 다지고 싶다면 기초 제품에 투자해야 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진설수 & 진설유액

1

안티에이징의 결정체, Red Treasure™

진설 라인의 핵심 성분은 Red Treasure™. Red Treasure™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적송에서 채취한 성분을 무려 66배나 응축한 안티에이징의 정수로 피부 노화의 징후에 작용해 피부 본연의 힘을 끌어올려 견고하고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2

미세 수분 입자에 담은 풍부한 영양

설화수 진설수를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풍부한 영양감은 부드럽고 농밀한 스킨 텍스처를 이루는 특별한 기술 덕분. 설화수 진설수는 미세 수분 입자 안에 풍부한 영양을 담아 수분과 영양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할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준다.

3

청량감과 탄력감을 동시에

설화수 진설유액은 탄력감이 느껴지는 농축 텍스처의 로션으로 가볍게 발리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느낄 수 있다. 얼굴에 바르자마자 빠르게 흡수되며 적절한 수분과 깊은 영양을 공급해 진설유액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스킨케어 효과를 볼 수 있다.

추천 포인트

POINT 1

기초부터 전방위 안티에이징 케어

POINT 2

풍부한 수분감과 농밀한 영양감을 동시에

POINT 3

따라올 수 없는 하이엔드 기초 스킨케어

“진설수와 진설유액을 써보고 엄마가 왜 늘 설화수를 고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진설수와 진설유액 딱 두 가지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확연히 차지고 촉촉해진 기분.”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영양감이 풍부한데도 유분이 걸들지 않아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들뜨지 않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설화수 진설수

적송 성분에 말린 생강인 건강, 버섯의 일종인 마고 성분을 더해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12만5천원.

설화수 진설유액

적송 성분에 잣에서 추출한 오일인 해송자유 성분을 더해 윤택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에멀전. 125ml, 14만원.



깊이 자리잡은 표정 주름까지 지워라

일상의 흔적으로 깊이 자리잡아 얼굴 인상까지 좌우하는 표정 주름, 고민이 되는 표정 주름까지 지워주는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를 소개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단 2주만의
표정 주름 개선 효과



단 2주만의
굵은 주름 개선 효과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①

인상을 결정하는 표정 주름

일상 속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을 때 얼굴의 특정 근육을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자리잡은 깊은 주름이 바로 표정 주름. 근육을 사용해 자리잡는 주름만큼 가장 없애기 힘들 뿐 아니라, 미간, 입가 등의 부정적인 표정이 주름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얼굴 인상을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

②

고함량 레티놀에 펩타이드를 더하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에는 이름 그대로 역대 고함량 레티놀 0.3%에 다양한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깊게 자리 잡은 표정 주름까지 단 2주 만에 개선해준다. 다른 아이오페 레티놀 제품에서 확인하지 않은 미간 주름과 불독 주름 등의 깊은 표정 주름에 대해서도 개선 효과를 확인한 강력한 주름 개선 에센스이다.

③

겨울철 피부를 위한 초영양 레티놀

레티놀 포 링클 0.3%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강화되어 적응기에 겪을 수 있는 피부 자극을 완화해주고 피부 턴 오버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쏠쏠하게 윤기를 남기는 영양감으로 주름 부위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어, 추운 계절에 특히 사용하기 좋다.

*시험 기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소(주)
시험 기간 : 2021년 06월 1일 ~ 2021년 06월 30일
시험 대상 : 만 40~59세의 여성 21명 (평균 51.905±4.134세)

“바르자마자 얼굴이 팽팽하게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다른 레티놀 제품과 확실히 다르다. 양을 잘 조절해 바르면 고함량임에도 자극이 확연히 덜하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3일 정도 발랐을 뿐인데 미세하게 잡혔던 팔자주름이 사라졌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현민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레티놀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밤 전용 고함량 레티놀 세럼. 20ml, 13만원.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이를 위해 꼭 필요한
프리미엄 홍삼 앰플인 **바이탈뷰티 명작수**를 만나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바이탈뷰티 명작수

1

귀한 홍삼의 기운을 다스리는 특별한 천삼화 기술

바이탈뷰티는 홍삼의 탁월한 성분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단시간에 높은 압력을 주어 홍삼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얻어내는 인삼 가공법인 천삼화 기술을 개발해 명작수에 활용했다.

2

피로개선과 면역력 증진을 돕는 프리미엄 홍삼 앰플

명작수는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항산화 뿐 아니라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을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까지 식약처에서 5대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3

첨가물 없이 부드럽게 맛을 낸 진한 홍삼

명작수는 아모레퍼시픽만의 노하우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맛을 내어 홍삼의 쓴맛을 싫어하는 분도 부담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앰플 형태라 먹기도 간편하다.

추천 포인트

POINT 1

홍삼의 힘을 그대로 전하는 천삼화 기술

POINT 2

5대 기능성을 인정받은 프리미엄 홍삼 앰플

POINT 3

먹기 편한 홍삼 앰플

“겨울만 되면 추위를 심하게 탔는데, 속부터 몸이 따뜻해진 느낌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어머나가 사주신 바이탈뷰티 명작수를 먹은 이후부터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다.”

-아트 디렉터 김경남

“늘 피곤하고 무거웠던 몸이 한결 상쾌하고 가벼워졌다.”

-<마리골레르> 뷰티 디렉터 윤취진

바이탈뷰티 명작수 천삼화 기술을 적용한 진한 홍삼 농축액으로 신체 본연의 생명력을 깨워주는 프리미엄 홍삼 앰플. 20g×30앰플, 16만원.



세 가지 매력의 테이크아웃 향수

나의 시그니처 향을 지니는 것도 좋지만, 그날의 기분이나 옷차림에 어울리는 향수를

뿌리는 것도 향을 입는 세련된 방법이다. 어떤 향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면 구딸 파리가 준비한 트라이얼 세트 3종을 추천한다. 다양한 향에 도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휴대하기 편해 하루종일 풍성한 향을 즐길 수 있다.

프렌치 하이 퍼퓸러리 브랜드 구딸 파리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구딸 파리는 피아니스트이자 패션모델로도 활동했던 조향사 아닉 구딸이 1981년 파리7구 벨사스가에 첫 부티크를 열며 그 역사를 시작한 니치 향수 브랜드다. 강렬하고 센슈얼한 향수 일색이던 당시 등장한 순수하고 내추럴한 향기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지닌 파리지역을 사로잡았고 구딸 파리는 독보적인 향수 브랜드로 성장했다. 아닉 구딸은 인공적이고 유행에 치중하는 향이 아니라 천연 원료를 바탕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향으로 표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향기로 각인하고자 노력했다. 구딸 파리 향수의 향을 맡으면 단순히 향이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아름다운 세계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향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진 덕에 브랜드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구딸 파리는 최고의 니치 향수 브랜드 중 하나로 손꼽히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세 가지 매력으로 만나는 구딸 파리

향수마다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지닌 구딸 파리.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향수를 모두 갖고 싶지만, 자신에게 어울릴지 확신이 없거나 시간이 지난 후 잔향이 어떻게 변할지 날씨에 따라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 소비자를 위해 구딸 파리에서 대표 향수 세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트라이얼 세

트를 준비했다.

10mL 용량의 휴대용 향수와 바디 크림을 고급스러운 벨벳 파우치에 담은 트라이얼 세트는 핑크 웨리, 페누 드 스와레, 에두알 뉘 뉘로 선보인다. 핑크 파우치에 담긴, 아닉 구딸이 스무 살을 맞은 딸에게 선물한 향수로 유명한 핑크 웨리는 복숭아와 로즈 머스크, 바닐라로 이어지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사랑스러운 향으로 골프 라운딩이나 점심 모임 등에 잘 어울려 데일리 향수로 제격이다. 퍼플 파우치 안에 담긴 페누 드 스와레는 아이리스와 파츨리 향이 어우러져 달콤하면서도 매혹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향수로 특별한 저녁 모임 자리에 알맞다. 그린 파우치에 담긴 에두알 뉘 뉘는 아이리스, 로즈, 라즈베리로 이루어진 플로럴 계열이지만 파우더리한 느낌이 더해져 구딸 파리의 독특한 향의 세계로 이끄는 관능적인 향수로 잊지 않을 강렬한 향을 찾는 사람이라면 도전할 만하다.

세 가지 향 모두 휴대하기 편한 용기에 담겨 있어 파우치에 넣어 다니며 중요한 순간 뿌리기 좋다. 또한 함께 제공하는 유니버설 바디 크림은 구딸 파리의 조향사가 설계한 신비로운 향의 바디 크림으로 시트러스와 머스크 향이 은은하게 풍겨 어떤 향수와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바디 크림과 향수를 같이 사용하면 보다 풍부한 향을 즐길 수 있다. 사랑스러운 패키지에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도 좋을 듯하다.



PERFUME STORIES

세 가지 향수에 담긴 신비로운 이야기.

구달 파리 뽀띠뜨 쉐리 트라이얼 세트

스무 살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보자. 미숙하지만 열정과 호기심이 넘치고, 예측 불허의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두려움 없이 도전하던 그때.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스무 살 청춘의 모습을 담은 향수가 뽀띠뜨 쉐리다. 아낙 구달이 딸 까밀 구달의 스무 살 생일을 기념해 만든 사랑의 향수로 복숭아와 배의 상큼한 향기로 시작해 사랑스러운 장미 향이 퍼지다 따스한 머스크와 바닐라로 마무리되며 예측 불허의 매력을 발산한다.

뽀띠뜨 쉐리 EDP 10ml + 유니버설 바디 크림 20ml + 벨벳 파우치, 3만8천원.

구달 파리 에뚜알 뉘트 트라이얼 세트

아이리스, 로즈, 라즈베리를 원료로 한 소프트 카날 계열의 에뚜알 뉘트 뉘는 깊은 밤처럼 매혹적인 그린 보틀에 뽀띠뜨 카프로 포인트를 준 본품의 모습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은 향수. 밤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외출하기 직전, 좋아하는 파우더를 꺼내 브러시로 얼굴을 가볍게 쓸고,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른 뒤 깊은 밤 속으로 서둘러 떠나는 여인의 모습. 립 스틱 향기와 파우더의 부드러운 텍스처, 그리고 뜨거운 그녀의 숨결은 '하룻밤만 빛나는 별'이라는 이름처럼 관능적인 여운을 남긴다.

에뚜알 뉘트 EDP 10ml + 유니버설 바디 크림 20ml + 벨벳 파우치, 3만8천원.

구달 파리 떼뉴드 스와레 트라이얼 세트

'이브닝드레스'라는 뜻의 이름 그대로 이브닝드레스 위에 보라색 퍼 스톨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선 여인의 매혹적인 자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향수다.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정성스레 자신을 꾸미고 준비하는 설렘과 대담한 기운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특징. 여성스러운 아이리스와 관능적인 파출리가 섞이며 마치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경계처럼 수줍은 듯 달콤하다가 대담하게 이어지는 향의 전개가 흥미진진하다.

떼뉴드 스와레 EDP 10ml + 떼뉴드 스와레 바디 크림 20ml + 벨벳 파우치, 3만8천원.

HOW TO USE

구달 파리 트라이얼 세트를 더 풍성하게 즐기는 법.

POINT 1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릴 것
향수를 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손목과 목덜미, 팔꿈치나 정강이 뒤쪽 등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면 향이 잘 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POINT 2

바디 크림과 레이어드할 것
향수를 뿌린 뒤 그 부위에 바디 크림을 바르거나 반대로 바디 크림을 바른 뒤 그 위에 향수를 뿌리면 바디 크림이 향수를 머금어 향이 더 오래 지속된다.

POINT 3

재킷이나 코트 안쪽에 뿌리기
도톰한 니트 스웨터, 재킷이나 코트 안쪽에 향수를 뿌리면 향이 은은하게 퍼져 하루 종일 향을 즐길 수 있다.

POINT 4

소지품에 뿌리기
자주 들고 다니는 지갑, 파우치나 에코백 등은 끈끈한 냄새가 나기 십상이다. 파우치나 에코백 안쪽에 향수를 뿌려두면 청결한 느낌을 줄 수 있다.



MODEL: MARIE, MAKEUP: LEE YOUN SUN,
JAYE PARK (A 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남자 피부 공식

남자 피부에 필요한 정답을 찾기 위해 빼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은 각각 무엇일까.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 - 피부 불편감 + 촉촉함 =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무엇인가를 바르는 행위 자체가 피부를 더욱 번들거리게 하거나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스킨케어에 무작정 기피하는 남성들이 많다. 오랫동안 이어온 이런 습관 때문에 피부는 더욱 메말라가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번들거리거나 예민해진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한 이후 피부가 민감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다가올 자극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낼 힘을 기르는 것이 정답. 프리메라의 맨 오가니언스 라인에 마로니에 씨앗과 캐모마일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메마른 남성들의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고,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전달해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 누구나 다 만족할 만큼 빠르고 산뜻하게 흡수되므로 답답하거나 번들거릴 거라는 편견은 버릴 것. 은은한 시트러스 플로럴 우디 계열 향도 매력적이다.

1.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세안 직후 빠르게 건조해지는 남성들의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고 오랫동안 메마르지 않게 지켜준다. 180ml, 3만원.

2.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더하는 에멀전. 번들거리지 않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다. 150ml, 3만원.



1. 헤라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에너지대사를 활성화해 맑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고농축 에센스 질감의 스킨임에도 산뜻하다. 125ml, 4만2천원

2. 헤라 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깊이 영양 성분을 전달해 피지, 모공, 건조, 피부 톤, 주름이라는 남성의 대표적인 5가지 피부 고민을 케어해준다. 110ml, 3만8천원.

피곤해 보이는 피부 - 칙칙함 + 활력 = 헤라 옴 에너지 리부팅

노화의 바로미터 중 하나가 바로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이 개운할 만큼 잦아도 피부가 칙칙하거나 얼굴이 푹 꺼져 보인다면 생활 습관부터 스킨케어 루틴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가능한 한 속면을 취할 수 있게 노력하고, 음주나 흡연, 고기 화식의 횟수는 줄일 것. 마신 양의 2배에 달하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하는 커피 역시 몸속과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킨케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본 중에 기본은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스킨케어를 하는 것. 손은 몸에서 가장 위생적이지 않은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세정제나 비누등으로 한번 더 꼼꼼하게 씻은 뒤 스킨케어를 준비해야 한다. 샤워 후에는 모발이나 몸보다 얼굴을 먼저 수건으로 살짝 눌러두는 것. 이후 가볍게 수분만 충전하는 제품보다는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더해줄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면 된다. 헤라 옴의 에너지 리부팅 라인인 피부의 에너지대사를 촉진해 피부 톤과 주름은 물론, 건조하고 번들거리는 현상까지 한번에 개선해 피부를 환하고 생기 있게 가꿔준다.



1. 헤라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클렌징과 면도 등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꾸며 보호해주는 산뜻한 스킨. 100ml, 7만원.

2. 헤라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번들거리는 현상을 없애고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며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막아준다. 100ml, 7만원.

쿵쿵한 아저씨 이미지 - 칙칙한 냄새 + 남성적인 향기 = 헤라 옴 매니시모

다행스럽게도 한국인은 유전적인 이유로 체취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체취의 덩어리 될 수 있다. 특히 40세가 넘으면 체취를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홀아비 냄새'가 나기 쉽다. 평소에는 냄새가 없는 땀과 피지가 피부 표면의 박테리아균에 의해 분해되며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이 두 경우 모두, 냄새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향수를 뿌리면 향과 냄새가 섞여 제3의 역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부지런히 씻고 말끔한 피부에 은은한 스킨케어의 향기를 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헤라 옴의 매니시모 라인에 리코리스 우드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향과 오드의 파워풀한 향으로 세련된 남성미를 한껏 부각시킨다. 자작나무와 편백나무 유래 성분을 함유해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고 활력을 더하며 건조하고 자극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1. 헤라 옴 블랙 퍼펙트 스킨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고 활력을 더하는 스킨. 시트러스 허브 그린 우드 계열의 프레시한 향으로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150ml, 5만5천원.

2. 헤라 옴 블랙 퍼펙트 로션
보습 성분과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노화를 막고 생기가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로션. 150ml, 5만5천원.

노화에 직면한 피부 - 스트레스 + 생기 = 헤라 옴 블랙

담배, 커피, 게임, 음주나 회사까지. 저마다 선호하는 방법으로 매일 쌓인 스트레스는 적극적으로 풀면서 피부 스트레스는 신경 쓰지 않으니, 피부가 빠르게 지쳐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여성에 비해 두꺼운 남성의 피부는 대체로 노화가 늦게 시작되지만, 일단 시작되면 그 속도가 견잡을 수 없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피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기를 더해줄 스킨케어 제품을 써야 한다. 평소 제대로 씻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면 피부의 스트레스 지수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화장대 위에 안티스트레스 스킨케어 제품을 올려두길 권한다.

헤라 옴 블랙 라인에 땅속의 다이아몬드 블랙 트러플 추출물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고, 생명의 나무 열매 아사이베리 추출물로 지친 피부에 활력을 더한다.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이나 건조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메마르지 않게 도와 윤기가 흐르게 해준다.



추억을 품은 공간

과감한 컬러와 모던한 가구, 다채로운 소품이 조화를 이루는 곳. 미드센추리 모던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백길현 소장의 집에는 세 식구가 여행지에서 쌓아온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b_design_lab_100

백길현

세라믹 아티스트 아내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 비디자인 랩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거주자의 행복한 시간을 담은 주거 공간 디자인과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안전하고 세련된 의료 공간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요즘 꽤 많은 가구나 소품의 수식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미드센추리 모던'이다. 셀럽들의 집을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테리어 관련 정보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는, 최신 트렌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40~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디자인 양식으로 실용성과 간결한 디자인을 접목한 것을 미드센추리 모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하던 차에, 이 단어를 시각적으로 풀어둔 곳을 찾아가는 행운을 얻게 됐다. 바로 비디자인 랩 백길현 소장의 집이다. 그의 집은 화이트 벽과 자연스러운 나무 바닥 일색인 여느 집들과 사뭇 다르다. 그동안 주거 공간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컬러와 패턴이 혼재하고, 다양한 소재의 가구와 조명이 공간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미국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의 벽 장식이나 오묘한 컬러의 가구들은 미니멀한 인테리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긴다.

"사실 제가 미드센추리 모던 디자인을 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했던 프랑스니스 여행의 추억을 담다 보니 이렇게 됐죠. 니스라는 지역 자체가 컬러풀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그곳에서 본 가구의 화려한 색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저와 아내, 아들에게 여행은 그곳의 문화를 탐구하는 일이고, 그곳의 시간을 담아 오는 주머니와 같아요. 여행지에서 보낸 시간을 저는 공간으로, 세라믹 아티스트인 아내는 도자기로, 포토그래퍼를 꿈꾸는 아들은 사진으로 담아내죠." 그는 '집이란 주인의 시간을 담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에 의뢰인의 행복했던 시간을 담고 불행했던 기억을 왜곡하기도 하면서 서로 교감하려고 노력한다. 인테리어에 앞서 의뢰인과 그 가족을 만나 개인적인 경험을 듣는 것이 백길현 소장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부부의 추억이 담긴 소품이나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예전 모습 등은 인테리어의 훌륭한 소재가 되곤 한다. 두꺼운 앨범을 들고 와서 행복했던 때의 추억을 들려주는 의뢰인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이렇게 수집한 추억과 기억은 인테리어에서 가장 직관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컬러나 소재의 형태로 녹아 공간에 스며든다.

"주거 공간을 디자인하기에 앞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그곳에 살게 될 사람의 취향이에요. 하얀 벽과 대비되는 바닥의 색만으로도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물론, 그가 입고 온 옷과 가방 등을 세심히 관찰합니다. 의식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옷이나 가방을 입거나 들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후, 그 컬러나 패턴 등을 잘 버무려 디자인을 제안하죠. 이렇게 추억이나 취향을 담은 공간을 완성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의뢰인에게 착을 가진 목걸이의 원형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벽을 디자인한 적이 있는데, 의뢰인이나 저나 무척 만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게 뭘가 싶을지 몰라도요."

모든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한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꺼리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의 작업이 마음이 들어 찾아왔다 할지라도 "맞춤형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전 그냥 하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가능한 선까지 절충하다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한다. 백길현 소장의 뜻대로 완성된 공간에서 '디자인이 이게 예쁘다고 했는데...' 하며 불편하게 지내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완공 후 거주자가 살면서 '디자인을 망친다'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그는 거주자의 소품이나 가구들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환영한다. 그게 비록 모던한 공간과 대비되는 화려한 용 모양 장식품이라 할

지라도, 거주자의 취향이 녹아 있는 그 소품이 있기에 비로소 공간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사용자의 그릇을 만들어 그 사람만의 시간을 마음껏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인테리어의 핵심이다. "집 꾸미기에 앞서, 본인이 진심으로 행복했던 시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광범위한 이미지로는 행복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호텔의 하얀 침대보를 행복의 포인트로 잡아내는 것처럼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첫 해외여행지에서 묵었던 호텔 방의 이미지, 자전거를 타고 한강 변을 달릴 때 느낀 상쾌한 기분, 광안대교 위를 질주하는 광고속 이미지 등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여기



TIP

**백길현 소장이 말하는
미드센추리 모던 인테리어 연출법**

1. 영화를 참고할 것

표현하고 싶은 시대의 영화를 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당대에 만들어진 영화보다는, 그 시대를 재해석한 현대 영화를 보는 편이 더 도움이 된다. 미드센추리 모던 디자인을 이해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영화는 <캐치 미프 유 캔>.

**2. 금속, 유리, 가죽 등을 조합한
가구를 배치할 것**

미드센추리 모던은 여러 장르가 뒤섞여 만들어졌다. 그 자체로 퓨전이기 때문에, 미니멀한 공간에도 얼마든지 융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미지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 가구. 모던한 공간에 다양한 소재가 혼합된 가구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확 달라진다.

3. 소품의 힘을 빌릴 것

미국에 유럽의 문화가 녹아들어 탄생한 것이 미드센추리 모던인 만큼, 마리메코 같은 북유럽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패턴의 패브릭을 활용해도 효과적이고 컬러풀한 액자나 러그 하나만으로도 쉽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듯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않고 공간에 구현해내기 위해 그가 택한 방식은 사진 찍기. 사진은 이미지 속에 당시의 향기, 음악, 바람 등을 다 담을 수 있는 오감의 열쇠와 같기 때문이다. 백길현 소장의 집은 세 식구 모두 사진 찍기를 즐기는 덕분에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집 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추억은 또 다른 새로운 기억과 만나 세 사람만의 이야기를 완성해간다. 영국에서 찍은 사진 앞에 놓기 위해 사 온 영국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피규어에, 때마침 원하는 곳에 합격하 아들을 축하하는 의미가 더해져 새로운 기억이 되는 식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쌓게 될 추억을 더해 다음 집을 완성하기로 약속했다.

일반적이지 않으면 낯설어하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이 예쁘긴 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말을 듣곤 한다는 백길현 소장의 집.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어색하지 않고, 나와는 먼 공간으로 보이더라도 꼭 따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이곳에 녹아 있는 추억의 온도 덕분일 것이다. ⑩



가장 가까운 사이

탄탄한 몸매와 건강한 피부가 똑닮은 문산희, 제예림 모녀. 서로에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는 그들은 서로에게 대체 불가한 존재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MAKEUP: BAE HYE RANG, HAIR: CHO SO HEE, STYLING: LEE GYEONGWON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엄마 문산희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 제예림. 함께 있을 때에도,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지금도 이 둘은 여느 친구나 자매 못지않게 모든 일상을 공유한다.

“친구들이 엄마를 언니라고 불러요. 제가 외동딸이라고 말하면 ‘에이, 네가 무슨 외동딸이야. 너 언니 있잖아’ 하며 핀잔을 주죠. 오늘도 촬영이 끝나면 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어쩌면 가장 멀 수도 있는 관계가 엄마와 딸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대체 불가한 존재다.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 삶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교우 관계, 심지어 남자 친구와의 애정 문제까지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상담사가 가까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해답을 얻기 때문일지 모른다. 엄마가 어떤 문제라도, 심지어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한 질문에도 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모두 그녀의 노력 덕분이다.

“정치나 건축, 야구 등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겠지만,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기본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은 알고 있으려고 노력하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오징어 게임>도 챙겨 봤어요. 젊은 친구들과 과다 잘 소통하고 싶어서요.”

부산의 가장 변화가에서 사업을 하며 익힌 젊은 감각과 다방면에 걸친 관심 덕분에 엄마 주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구들이 아주 많다. 딸은 엄마가 ‘젊어 보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젊어서’ 좋다고 말한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지점 역시 이 점이다. 이렇듯 엄마가 딸에게 기탄없이 조언해주는 것도, 딸이 그 조언을 잘 따르는 것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할 터. 특히 엄마는 딸을 무한히 신뢰한다. 늘 꼴찌를 도맡아 하다가 어느 순간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하더니 얼마 후 1등을 차지했고,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서 훌륭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 믿음이 이해가 된다. 이런 폭심과 추진력은 엄마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잔소리하거나 참견하지 않았기에 가질 수 있었던 능력이다.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여성의 생애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설화수.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아름다움이 세대를 거쳐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설화수는 이 시대 모든 어머니와 딸을 응원합니다.

다. 정작 본인은 엄하게 자라 많은 것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딸만큼은 하고 싶은 것을 뭐든 다 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엄마의 화장품으로 몰래 숨어 화장하곤 할 때 엄마는 딸의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을 순한 화장품을 사다 줬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경험해보기에, 딸은 잠깐의 방황을 뒤로한 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었다.

피부 관리에서도 엄마는 딸의 훌륭한 멘토다. 엄마는 워낙 건강한 피부를 타고나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20대 후반에 화장품을 잘못 쓴 탓에 피부가 트러블로 뒤덮이고 흉터가 남는 최악의 경험을 한 뒤 적극적으로 피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얼굴에 클렌징 폼의 거품을 얹은 뒤 1분 동안 문질러 마사지를 해요. 특별한 날엔 썬크림으로 두드리며 세안하고요. 스킨케어할 때에는 각 제품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단계별로 2분씩 틈을 줘요. 스킨을 바른 뒤 2분, 에멀전을 바른 뒤 2분, 에센스를 바른 뒤 또 2분... 메이크업은 5분을 절대 넘기지 않는데, 스킨케어에는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엄마를 닮아 빼빼고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는 딸도 무의식중에 엄마의 습관을 따라 하고 있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피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엄마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케어를 하지 않고 있지만, 썬크림 세안만큼은 매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 매주 4회 정도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매일 1만 보 이상 걷고 주 3회 정도는 등산을 하며 몸매를 관리하는 엄마의 영향이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꾸미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비단 메이크업뿐 아니라 옷이나 향기, 운동 등 뭐든 꾸준하게 본인을 가꿀 수 있는 좋은 뷰티 습관을 길러줄 거예요. 건강한 취미를 갖는 것만큼 삶에 좋은 원동력이 되는 건 없으니까요.”

나중에 딸을 낳게 되면 어떤 습관을 물려주고 싶느냐는 질문에 딸은 이렇게 답했다. 그 속에는 엄마 문산희가 본인에게 물려준 생활 습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LD**



#고기능탄력세럼
#리얼콜라겐
#홈에스테틱



생생한 제품 평가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을 체험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rabbit_zzu

오늘도 저녁에는 피부 관리하는 시간 내기. 민고 쓰는 헤라 제품답게 촉촉하고 건성인 제 피부에 수분 채워주는 느낌이 참 좋네요. 발림성 부드럽게 발려서 제 피부에 딱 맞아요.



@merryzzy

요즘 세수하고 나오면 피부 속이 건조해서 바로 찻찻찻 발랐는데 수분감이 차오르면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드네! 향도 좋고 패키지도 예뻐고 헤라 좋아!



@ri_ta

리얼 콜라겐으로 피부 속 탄력을 채우고 BX 펩타이드로 탄력을 찾아줘요.



@97crstalkiki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건조해지는 요즘, 자기 전에 바른 후에 크림을 살짝 덮어주니 다음 날 아침에도 얼굴이 촉촉해요. 고보습 영양 세럼이라 보습 효과가 좋고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잘되어 더 좋더라고요. 내일 아침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하세요.



@k.susuu

칼바람과 히터에 괴롭힘을 당해도 건조해 피부가 나이를 먹는 건 참을 수 없기에 고보습 영양으로 피부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ileenkeem_

탄력과 수분 모두 부족한 요즘의 제 피부에 꼭 필요한 제품.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고기능 에스테틱 세럼이에요. 무겁지 않은 제형이라 더 맘에 든다는 거!

◀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다중층 리포솜 베이스 솔루션 83%와 피부 탄력과 리프팅에 탁월한 BX 펩타이드, 리얼콜라겐, 샬 EGF를 배합하여 늘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 주름을 개선하며, 피부 속 탄력을 채워주는 고기능성 세럼. 40ml, 12만원.



@m87_yu_jin

집중적 리프팅이 필요해 제품도 탄력 라인에 관심이 가는 시기. 굉장히 끈득한데 스며들면서 부드러워진다. 고기능성임에도 무겁지 않아 좋은 제품.



@miseo_0526

탱탱한 피부를 위해 집에서 철저히 관리.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이에요. 바르자마자 탄력이 팍 차오르는 느낌. 활활기 피부 탄력 놓치지 마세요.



@do.earr

요즘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다니다 보니 피부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야 메이크업을 안 해도 밝게 빛나니까요. 요즘 피부 관리를 위해 자주 바르는 제품 중 하나가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콜라겐이 듬뿍 들어 있는 제품이라 탄력과 주름 개선에 좋아요.



@boyuni._

운동 끝나고 헤라 리포솜. 촉촉하고 매끌매끌하고 진짜 바르자마자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야.

PLACE 1월의 핫 플레이스

photographer KIM YEON JE, LEE SEOK YEONG
 editor YU SEON AE, KANG YE SOL, KIM SUN HEE



하우스하서주

신라시대에 강릉 일대를 부르던 '하서주'란 명칭에서 따온 '하우스하서주'는 강릉 출신 플로리스트 전다솜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숙소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며 사람들의 관심이 지방으로 향하자 '강릉이 고향인 사람들이 거처를 구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비교적 저렴한 구옥을 서둘러 사들여 고민 끝에 숙소로 꾸미기로 결정했고, '1970년대 미국의 가정집'을 콘셉트로 인테리어해 하우스하서주를 오픈했다. 독특한 소품과 빈티지 가구도 눈길을 끌지만 플로리스트가 운영하는 숙소답게 투숙객이 체크인하기 전, 전다솜이 거실 테이블의 화병에 직접 꽂아둔 꽃이 인상적이다. 어느 장소든 생화가 있으면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는 그는 다양한 색, 독특한 종류의 꽃들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곳을 찾아왔던 손님들의 여행 후기는 서재 책상에 놓인 방명록에 남겨져 있다. 그 기록과 주인장이 직접 적어놓은 답글을 읽는 것도 하우스하서주를 만끽하는 방법 중 하나일 듯하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207번길 2-2
 인스타그램 @househaseoju
 비용 1박 25만원(평일)부터 27만원(주말)까지
 (3인 이상 이용 불가)



사로

이제는 몇 채 남지 않은 1970년대 한옥이 모여 있는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골목길에는 '좁은 길'이라는 뜻의 '사로(絲路)'가 자리하고 있다.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을 대문 밖에 벗어난 채 고요히 쉬 수 있는 이곳의 주인 이왕근 씨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 한옥 한 채를 숙소로 만들었다. 패션을 전공한 그의 감각은 사로 곳곳에서 빛을 낸다. 실내에 비치돼 있는 정갈한 디자인의 가운은 한복을 모티프로 현대적 가운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와 협업해 완성했으며, 숙소에 머무는 동안 즐길 수 있도록 직접 디자인한 옷과 공기도 마련해 두었다. 그가 꼽는 한옥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한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여유와 고즈넉한 정취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동안의 여유를 찾아 이곳에 온 손님들을 위해 사로의 체크인 시간은 오후 12시이고, 다른 숙소인 '늦잠'의 체크인 시간은 오후 1시다.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여유를 누렸으면 하는 이왕근 씨의 바람 때문이다.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학3길 73-22
 문의 010-5334-5397 인스타그램 @saro_stay
 비용 1박 25만원(비수기 평일)부터 45만원(성수기 주말)까지(최대 2명)

주인 보고 가는 숙소

매력적인 주인의 이야기와 감각이 깃든 곳에서 보내는 하룻밤.

웻에버

광안리 해변길 뒷길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웻에버'는 독립 건축 프로젝트 크루 27club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그들의 사무실 옆에 위치한 스테이의 이름이다. "광안리인데 바다가 보이는 숙소가 아니라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았어요. 이런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을 멋지게 재탄생시킴으로써 골목도 예쁘게 만들고, 동네도 재미있게 변화시켜보자는 게 우리의 취지이자 목표예요." 기획과 공간 설계를 맡은 한규철, 제작과 시공을 담당하는 손태엽, 마케팅과 촬영을 주로 하는 정찬웅, 전체적인 디렉팅을 총괄하는 유주현. 이 4명의 멤버가 모인 27club의 웻에버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동시에 전주에서 두 번째 독립 건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문의 0504-0904-2450
 인스타그램 @wetever_official
 비용 1박 2인 기준 23만원(비수기 주중)부터 26만원(성수기)까지(추가 인원 1인당 1만5천원, 최대 4인)



이후북스테이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이후북스테이'의 호스트 천혜영은 친구가 운영 중인 망원동의 독립 서점 '이후북스'에서 착안해 이후북스와 북 스테이를 결합한 이후북스테이를 오픈했다.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그의 감각이 녹아 있는 이후북스테이 곳곳에는 독립 서적과 이후북스의 출판 브랜드 '이후진프레스'에서 낸 책 등이 비치되어 있고,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 모임을 비롯한 이벤트도 종종 진행 된다. 이후북스테이의 인테리어 요소 중 가장 돋보이는 건 바퀴가 달린 커다란 책꽂이다. 문을 열 듯이 살짝 밀면 통유리 창을 통해 햇빛이 잘 스며드는 작은 방이 보이고, 2층에는 다락도 있다. 기존 집을 증축해 새롭게 마련한 곳이다. 새벽이면 숙소 앞 골목길에서 물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 풍경이 보이고, 조금 더 걸어 나가면 동강이 나타나 는 등 영월의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이후북스테이의 또다른 장점.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여유를 되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후북스테이에서 하룻밤 묵기를 추천한다.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642-39
 문의 010-8978-8142 인스타그램 @afterbookstay
 비용 1박 2인 기준 18만원(비수기 평일)부터 25만원(성수기)까지(추가 인원 1인당 2만원, 최대 4인)

주제 협조: 에이머(엔비)



특별한 설날 선물 세트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오롯이 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선물 세트를 소개한다.

editor CHOI HYANG JIN

Sulwhasoo



설화수 자음2중 퍼펙팅 기획 세트

설화수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구성된 세트. 자음수 퍼펙팅 150ml +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 자음수 퍼펙팅 15ml + 자음유액 퍼펙팅 15ml + 윤조에센스 퍼펙팅 8ml + 자음생크림 퍼펙팅 10ml로 구성. 14만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세트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과 자음2중 퍼펙팅 라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세트. 윤조에센스 퍼펙팅 90ml + 자음수 퍼펙팅 15ml + 자음유액 퍼펙팅 15ml + 자음생크림 퍼펙팅 10ml + 순행클렌징폼 50ml로 구성. 13만원.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 세트

설화수 자음생크림 퍼펙팅과 자음2중으로 구성된 세트. 자음생크림 퍼펙팅 60ml + 자음생수EX 25ml + 자음생유액EX 25ml + 자음생에센스 5ml + 자음생크림 퍼펙팅 10ml + 순행클렌징폼 50ml로 구성. 25만원.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기획 세트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콜라겐을 함유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는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앰플. 25ml×70앰플, 22만원.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담아 신체 본연의 생기를 되돌려주는 프리미엄 홍삼 앰플. 20g×50앰플, 26만원.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패밀리 기획 세트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어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세트. (500mg×90정)×3 + 20일 체험분, 16만5천원.

HERA



헤라 시그니아 세럼 스페셜ギフト 세트

헤라를 대표하는 안티에이징 라인인 시그니아의 강력한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획 세트. 시그니아 세럼 50ml + 시그니아 워터 75ml + 시그니아 에멀전 50ml + 시그니아 크림 30ml로 구성. 28만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2중 기획 세트

에스테틱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라인.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워터 150ml +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에멀전 120ml +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프솜 5ml +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크림 5ml로 구성. 11만5천원.

primera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2중 기획 세트

피부 진정보습을 위한 프리메라 NO.1 스킨로션 2중 세트. 오가니언스 워터 18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150ml + 오가니언스 워터 3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30ml + 내추럴 리치 클렌징 폼 30ml로 구성. 6만원.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킨케어 2중 기획 세트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 세트. 쿨링 샴푸 380ml + 헤어모이스처라이저 150ml + 쿨링 샴푸 75ml + 헤어모이스처라이저 75ml로 구성. 6만7천원.

AMORE PACIFIC



아모레퍼시픽 타임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2중 세트

럭셔리 스킨케어를 만나볼 기회. 타임레스폰스스킨 리저브(이하 TR) 토너 200ml + TR 플루이드 160ml + TR 토너 31ml + TR 플루이드 31ml + TR 세럼 5ml + TR 아이 리저브 크림 3ml + TR 크림 8ml로 구성. 42만원.

RYO



려 명품 HBX 앰플 샴푸 & 두피모발팩 기획 세트

려 한방발효과학의 노하우를 담은 프리미엄 탈모증상완화 세트. 명품 HBX 앰플 샴푸 500ml + 명품 HBX 앰플 두피모발팩 200ml + 명품 HBX 앰플 샴푸 80ml + 명품 HBX 앰플 두피모발팩 50ml로 구성. 5만8천원.



1. 러 명품 HBX 앰플 샴푸 & 두피모발팩 기획 세트 힘 없는 모발과 건조한 두피 고민을 위한 러의 탈모 솔루션. 5가지 발효삼과 홍삼의 영양 성분을 듬뿍 담았다. 앰플 샴푸 500ml + 앰플 두피모발팩 200ml + 앰플 샴푸 80ml + 앰플 두피모발팩 50ml로 구성. 5만8천원.

2. 설화수 진설수 & 진설유액 적송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꿔주는 스킨과 에멀전. 각각 125ml, 12만5천원, 125ml, 14만원.

3. 구말 파리 페뉴드 스와레 바디기프트 세트 여성의 매력적인 이브닝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조향한 페뉴드 스와레의 향을 담은 샤워 젤과 바디 크림 기프트 세트. 페뉴드 스와레 샤워 오일 250ml + 페뉴드 스와레 바디 크림 190ml + 페뉴드 스와레 오드 퍼퓸 5ml + 페뉴드 스와레 바디 크림 20ml + 페뉴드 스와레 바디 크림 7ml x 6입, 18만5천원

4.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 조금만 방심해도 피부가 금세 건조해지는 요즘. 메마르고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프리메라 크림 미스트를 수시로 뿌리면 하루 종일 촉촉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120ml, 2만5천원.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1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4



3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SÉRUM RÉGÉNÉRANT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한층 한층 탄탄하게

*진귀한 인삼 사포닌 CK 함량 비교